

너무도 할 말이 많은데...

참을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
지교 각 삶이
너무 무겁다고 ..
참께 새벽이
너무 두렵다고 ..
벼에 가면 내모습이
너무 외롭다고 ..
죽을 만큼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
마련이 한이되어
너무 슬프다고 ..
마치도록
너무 보고 싶다고 ..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것
너무 하고 싶다고 ..

근데. 말할 사람이 없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성서 (The Bible) <예수>

작품 설명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25~30)

고통, 슬픔, 그리움
그리고 강렬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